

롯데 유통군, 27일부터 '롯데데이' 실시

본 행사 앞서 24일부터 온라인 채널 중심 행사 열어



롯데 유통군이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쇼핑 축제 '롯데데이'(사진)를 진행한다.

롯데는 '롯데'와 행운을 뜻하는 '럭키'의 합성어다. 롯데 유통 계열사와 함께 행운이 가득한 쇼핑 축제를 즐기자는 의미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온(에커머스), 코리아세븐(편의점), 롯데홈쇼핑, 롯데하이마트 등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 행운을 안겨줄 메신저로 '벨리곰'이 선정됐다.

본 행사에 앞서 24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사전 행사를 연다. 롯데온은 롯데데이 행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20% 할인 쿠폰과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홈쇼핑은 170억 원 상당의 쇼핑 지원금 지원 행사를 열고, 6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1만 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한다.

27일부터 시작되는 본 행사에서는 롯데마트의 한우 파격 할인, 롯데슈퍼의 신선식품 최대 50% 할인, 롯데하이마트의 대형가전 할인 등이 각각 열린다.

이선대 롯데 유통군 홍보실장은 "롯데 유통사 이용 고객에게 놀라운 행운을 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사전 행사를 통해 롯데데이에서 준비한 다양한 온라인 혜택을 경험해보기를 추천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궁중비책, 고보습 '프리문 딥 모이스처 크림' 선보



제로투세븐 궁중비책이 '프리문 딥 모이스처 크림'(사진)을 내놓았다. 찬 바람과 건조한 히터 바람에 노출되기 쉬운 가을·겨울 시즌에 깊은 보습감을 유지시켜 주는 고보습 크림이다. 어린 아기 피부에 필요한 진정·보습 장벽 개선 효능을 가진 궁중비책만의 특허 성분 로얄 오지 콤플렉스에 보습의 핵심 성분인 세라마이드와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2중 코팅 캡슐이 더해져 끈적임 없이 72시간 동안 지속되는 탁월한 보습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손목터널증후군과 방아쇠수지증후군 부담 적은 수부질환 수술로 개선 가능

방아쇠수지증후군이란 손가락 굽힘 힘줄인 굴곡건에 어떤 이유로 결절이 나타나 손가락 움직임을 방해하는 질환을 말한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딱'하는 소리와 함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이 현상이 방아쇠 당기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여 방아쇠수지라고 불린다. 휴식으로 어느 정도 증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손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생활 습관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있어 정밀 검사 및 치료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인대가 어떤 이유로 두꺼워져 신경관을 압박해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증상으로 손목 통증과 더불어 손저림, 감각 이상, 엄지근육 쇠약 및 위축 등이 있다. 상태가 지속될 경우 만성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다.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방아쇠수지증후군은 상태에 따라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수술적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손목터널증후군의 치료는 인대강화주사요법, 관절도수치료, 수술적 요법 등을 시행한다. 방아쇠수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의 가장 큰 특징은 최소절개로 외과적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수술시간이 짧아 당일 입·퇴원이 가능하다. 만성질환 환자, 고령층 환자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고 수술 즉시 통증 완화, 즉각적인 일상 복귀도 장점이다.

인덕원동은정형외과 이동은 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농심 최장수 라면 '너구리', 파워브랜드로 자리매김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농심 너구리가 누적 판매 60억6000만 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파워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완도산 다시마와 너구리 제품 이미지(왼쪽), 영국에서 열린 농심 너구리 해의 프로모션 행사.



“40주년 너구리, 60억6000만 마리 물고갔다”

“오동통통~ 쫄깃쫄깃~ 너구리 한 마리 물고 가세요~”

1982년 11월 론칭해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농심의 최장수 라면 브랜드 너구리가 누적 판매 60억 6000만 개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으며, 파워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최초 우동라면 콘셉트

먼저 눈부신 실적이 눈에 띈다. 연 매출 1000억 원,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 60억6000만 개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약 120개씩 먹은 셈이다.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40년간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온 비결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얼큰한 해물우동 국물, 오동통하고 쫄깃한 면발로 일반 라면과 차별화를 뒀기 때문이다. 기존 라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맛으로 출시 초반부터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너구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동라면 콘셉트로 선보인 제품이다. 당시 농심은 소고기 국물 위주였던 라면시장에서 “우동처럼 굵고 부드러운면서도 쫄깃하고 국물 맛이 시원한 라면을 선보이자”는 의지로 제품 개발에 나섰다. 1980년대 초 주종을 이루던 100원대 제품과 비교 시 2배나 되는 200원대 고가임에도, 재밌는 제품명과 차별화된 해물우동 국물 및 두꺼운 면발로 인기를 끌었다.

라면 조리시 반을 쪼개어 넣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국내 최초로 둥근면으로 생산됐다. 부드럽고 쫄깃한 둥근 형태의 굵은 면발은 너구리의 대표 이미지로 자리잡았다. 맛도 특이했지만 제품명이 더욱 파격적으

로 받아들여졌다. 보통명사가 제품의 이름으로 사용돼 고유명사가 된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영화 기생충에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만든 '짜파구리'가 등장한 것이 계기가 됐다. 너구리는 해외 소비자 사이에서 'Rt A'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사랑받고 있는데, 이는 너구리 포장지를 거꾸로 뒤집으면 알파벳 R, t, A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별칭이다.



회사 측은 “국내 라면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회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은마아파트는 33개 동, 5778세대로 건립된다. 공공주택 678세대도 포함된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지어진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로 재건축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조각이익환수제(재조환)와 분양가 상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재

너구리가 이제 신라면의 뒤를 이룰 글로벌 K푸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완도산 다시마’가 매력포인트

너구리의 매력포인트는 국물맛의 화룡점정을 찍는 ‘완도산 다시마’에서 찾을 수 있다. 너구리 다시마의 고향인 전남 완도군 금일도는 국내 최고 품질의 다시마 산지로 유명하다. 일조량과 바람 등 다시마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 다시마 생산량의 60~70%가 이곳에서 생산된다.

농심은 너구리 개발 당시 깊고 진한 해물맛을 내기 위해 다시마를 활용해 육수를 낸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국내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품질이 좋은 완도산 다시마를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넣어 해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너구리를 완성했다. 통째로 넣은 다시마는 푸짐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시각적 효과도 함께 얻으며 너구리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너구리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농심의 40년 완도다시마 사랑은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상생경영 사례로 꼽힌다. 매년 평균 400톤의 다시마를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데, 누적 구매량만 해도 1만6000톤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제품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예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450톤을 구매했다.

회사 측은 “너구리 출시와 함께 시작된 완도와의 40년 인연 덕분에 농심은 완도 다시마의 큰 손으로 불린다”며 “앞으로도 완도 다시마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며,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재건축 심의 통과”…7부 능선 넘은 은마아파트, 다음 과제는?

33개 동·5778세대·35층 이하로 건립 예정
재조환 분담금·GTX 노선 변경등 문제 남아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사진)가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재건축 추진 26년 만에 사업이 본격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세대의 노후 아파트 단지로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혀왔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6년째 답보 상태를 지속했다.

2002년부터 안전진단에서 세 차례나 탈락했고, 2010년 네 차례의 도전 끝에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아파트를 49층 높이로 지으려다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가로막혔다. 이후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해졌고, 올해 재건축 규제가 대폭 풀리면서 5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회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은마아파트는 33개 동, 5778세대로 건립된다. 공공주택 678세대도 포함된다. 최고 층수는 35층 이하로 지어진다.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로 재건축을 위한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조각이익환수제(재조환)와 분양가 상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재

초환 부담금 개편안을 통해 부과 시점을 추진위 구성에서 조합 인가 시점으로 조정했지만, 수익 원의 분담금을 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용산 ‘한강맨션’의 경우 기존 7억7000만 원에서 약 7500만 원 가량만 재조환 분담금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분양가를 마음대로 높일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분담금이 과도할 경우 조합 내에서 갈등이 언제든 비화할 수도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노선 변경 문제도 남은 과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GTX가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면 지반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7월 GTX-C 은마아파트 우회 노선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재 우회 노선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면적 약 6000㎡에 달하는 상가 재건축도 문제다. 상가 조합원만 398명에 이른다. 은마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조합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내년에 조합설립 인가가 통과하면 최대 49층 높이로 정비계획한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HDC아이파크몰, 차범근 축구교실 지원

서울 용산 HDC아이파크몰이 옥상에 위치한 ‘아디다스 더베이스 풋살장’(사진)을 통해 차범근 축구교실을 지원한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촌 축구장 사용을 위한 입찰 경쟁에서 밀려 운영 중단 위기에 처했

지만, 아이파크몰이 대체 부지를 제공하면서 클럽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풋살장의 실내 1구장과 실외 7구장 중 2개 구장을 사용하며, 11월 2일 재개한다. 이 같은 결정에는 대한축구협회를 맡고 있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지원이 있었다.

회사 측은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